

작품 내용

제 목	이름이 머무는 자리
내 용	어떤 물건은 주인을 잃어버려도 한동안 주인을 기억한다. 낡은 책상 서랍 속의 연필, 오래 접힌 편지, 빛이 바랜 사진 뒷면의 낱자 같은 것들이 그렇다. 사람은 떠나도 손때는 남고, 말은 사라져도 말이 태어난 방의 공기는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나는 오래도록 창작이라는 것을 거창한 일로만 생각했다. 두꺼운 책을 쓰는 사람, 큰 무대에 오르는 사람, 이름이 신문에 실리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살아 보니 창작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누군가는 퇴근 뒤 작은 식탁에 앉아 문장을 고르고, 누군가는 새벽 창밖의 색을 사진으로 붙잡고, 누군가는 마음속에서 오래 굴러다니던 슬픔을 짧은 글 하나로 겨우 내려놓는다. 그런 것들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 사람의 하루는 바뀐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렇다. 창작물은 완성된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오기까지 버려진 말들, 망설임 시간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외로움까지 함께 품고 있다. 언젠가 낯익은 문장을 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우연히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읽을수록 이상했다. 문장의 걸음걸이, 잠시 멈추는 숨, 끝에서 방향을 바꾸는 버릇까지 내가 알던 것이었다. 그것은 오래전 내가 어느 밤에 적어 둔 문장이었다. 대단한 말은 아니었다. 유명해질 만한 글도 아니었다. 다만 그날의 나에게는 쉽게 내놓을 수 없는 마음이었다. 그 문장은 다른 사람의 이름 아래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기보다 쓸쓸했다. 마치 오래 살던 집 앞에 돌아왔는데, 문패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았다. 창문도 그대로이고, 계단의 삐걱거림도 그대로인데, 이제 그곳을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사람처럼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알았다. 이름은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름은 소유를 자랑하기 위해 붙이는 표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기 위한 작은 등불이라는 것을. 문장에도 고향이 있고, 사진에도 기다림이 있고, 그림에도 수없이 덧칠된 망설임이 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일은 단지 글자 몇 개를 빼는 일이 아니다. 그 뒤에 있던 밤과 손과 마음을 함께 지우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져오는 시대에 산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는 손가락 하나로 저장되고, 좋은 문장은 출처 없이 옮겨지고, 누군가 오래 생각한 말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말투가 된다.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은 아닌데, 편리함은 종종 우리의 양심보다 빠르게 달린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만큼은 여전히 느리다. 좋은 사진 한 장에는 기다림이 있고, 짧은 문장 하나에는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있으며, 작은 그림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실패가 층층이 쌓여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아주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이 아무 데서나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일이다.

남의 빛을 빌릴 때, 그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는 것. 남의 문장을 지나갈 때, 그 문장의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남의 창작물을 내 것처럼 앞세우지 않는 것. 이것은 어려운 법률의 문제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하루를 함부로 접어 넣지 않겠다는 조용한 예의다.

나는 이제 좋은 것을 만나면 잠시 멈추려 한다. 마음에 든다고 곧장 가져오기보다, 그것이 누구의 시간에서 왔는지 먼저 바라보려 한다. 출처를 찾고, 허락의 범위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만든 사람의 이름을 함께 남기려 한다. 작은 일이다. 그러나 어떤 작은 일들은 세상의 품격을 지킨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화면 앞에 앉아 문장을 고르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흐린 하늘 아래 오래 서서 한 장면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실패한 파일을 닫고 다시 새 파일을 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의 창작물에 이름을 돌려줄 때, 세상은 조금 덜 가난해진다. 그리고 이름이 제자리에 머무를 때, 창작은 다시 다음 사람에게 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읽고, 보고, 듣는다는 것은 사실 잠시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는 일과 비슷하다고. 그 방에는 주인이 남긴 컵이 있고, 아직 식지 않은 차가 있고, 미처 접지 못한 이불 같은 마음이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생각을 빌리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꾼다. 그렇다면 그 방을 나설 때 적어도 문을 닫아 주는 일, 그곳이 누구의 방이었는지 기억하는 일은 너무 큰 요구가 아닐 것이다.

창작자의 이름을 밝히는 일은 박수를 크게 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 여기 있었군요” 하고 말해 주는 일에 가깝다. 세상은 자주 사람을 잊는다. 빠른 화면은 더 빠른 화면에 밀리고, 어제의 문장은 오늘의 유행어에 묻히며, 한때 누군가의 전부였던 작품도 어느새 출처 없는 자료가 되어 떠돈다. 그럴수록 이름은 더 필요하다. 이름은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는 마지막 실편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창작물이 영원히 한 사람의 책상 위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좋은 글은 읽혀야 하고, 좋은 그림은 보여야 하며, 좋은 노래는 더 많은 사람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 창작물은 닫힌 서랍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너갈 때 다시 숨을 쉰다. 다만 건너가는 길에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 강을 건널 때 다리를 밟듯이, 남의 마음을 건널 때는 허락과 출처라는 다리를 밟아야 한다.

내가 쓴 작은 문장이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가 닿는다면, 그것을 막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문장이 길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마음의 계절에서 나왔는지 완전히 설명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아무 이름 없는 물건처럼 버려지지 않는다면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주머니에 넣어 버리지 않고, 잠시 멈추어 그 앞에 서고 싶다.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닐지도 모른다. 출처를 적는 손끝의 습관, 허락을 묻는 짧은 문장, 무료와 자유를 혼동하지 않는 조심성, 그

리고 “누군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는 태도.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창작자가 다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조금씩 창작자다. 누군가는 긴 소설을 쓰고, 누군가는 하루의 사진을 남기고, 누군가는 마음에 남은 말을 일기장에 적는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특정한 사람의 권리만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다. 언젠가 내 이름도, 내 시간도, 내 조용한 노력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이제 남의 빛을 빌릴 때마다 그 빛의 출발점을 생각하려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빛도 누군가에게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마음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서로의 시간을 밝히는 조용한 등불처럼. 세상이 조금 더 오래 따뜻하려면, 우리는 서로의 창작물 앞에서 조금 더 천천히 고개를 숙여야 한다.